

# 盧 빠지니 폭 꺼진 '거품 지지율'

### ■ 한나라 재보선 참패...대세론 제동

## 反盧정서에 안주...‘無盧 선거’ 패배

## “이대론 대선 승리 어렵다” 초비상

한나라당이 4·25 재보선에서 예상 밖의 참패를 함으로써 이른바 '대세론'의 확실한 보증수표였던 당과 대권주자의 고공지지율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가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이후 처음 치러진 이른바 '무노(無盧)- 무여(無與)' 선거였다는 점에서 최근 수년간 각종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반노(反盧) 정서에서 부풀어오른 거품임이 증명됐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은 50% 안팎, 박근혜-이명박 두 주자의 합산지지율은 70%를 넘나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전서울과 서울 양천 등의 선거 패배를 거품 이외로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서적 반발감에 따른 반사이익에 안주해온 한나라당의 대선전략으로는 연발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다소 소극적인 결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관측은 범여권이 후보를 내지 않고 사실상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를 지원하며 범여권 대통령합의 시련 무대로 삼았던 대전 서울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가 심 후보에

게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참패함으로써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범여권이 한나라당의 '정권 심판론' 타깃이 돼온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의 기치 아래 새로운 정치세력을 결집시킨 뒤 대선후보를 낼 경우 반노 정서에만 기대됐던 한나라당으로서는 집권이 또 다시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것.

이와 관련, 강창희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직 사퇴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과의 싸움에서는 항상 승리하던 한나라당이 반 한나라당의 결집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치대결구도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후보 지지율로 연결하는 데는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토로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부분의 재보선이 정권 심판이었는데 이번 재보선은 지지율 50%에 이르는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다. 경기 화성지역만 열린우리당이 나와서 한나라당이 반사적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 지지층이 50% 가량 됐는데 이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나 무능에 대한 반발임에도 이를 한나라당이 착각하고 착시현상을 일으켰

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올 대선이 어렵다. 당 자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이번 선거는 대세론에 안주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옐로카드이며 계속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레드카드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번 재보선이 반노 정서에 따른 거품을 빼고 공고한 지지율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일찌감치 거품을 빼고 당 자체 개혁을 통해 온전한 지지율을 가져올 경우 올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강재선 대표와 이재오 최고위원, 김형오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 패배에 대한 자성론속에 침뚫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지도부 총사퇴·대선주자 책임론 격론

### 재보선 참패 고성 오간 한나라 의원총회

한나라당이 26일 4·25 재보선 참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한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 책임론 및 당진로,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발언에 나선 수 십명의 당 소속 의원 중 대다수는 "이대론 안된다.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며 강재선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비대위 구성이나 임시 전당대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상황이 그렇게 위중하지

않다"며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한 의견은 소수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의총 모두에 단합과 새로운 출발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토론에서는 의원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고성까지 오갔다는 후문이다.

특히 재보선 참패의 책임 소재를 놓고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양대 대선주자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침없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 나선 박 진 의원은 "비상상황

인 만큼 지도부가 재신임 받을 수 있다면 재빨리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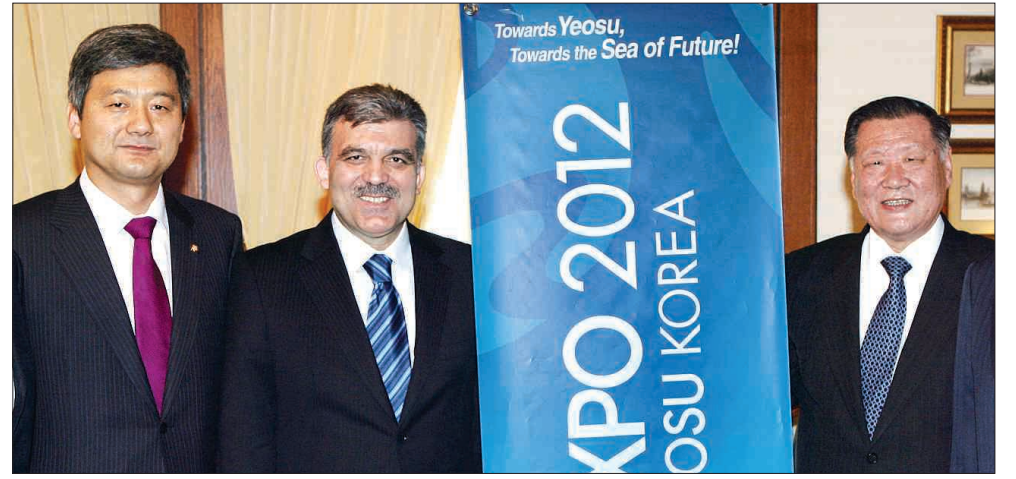
소장과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은 "임시 전당을 열어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해 당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사람들만 주로 투표장에 나왔다. 최선을 다하면 희망이 있다(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질 곳에서 지고, 이길 곳에서는

이겼다(김양수 의원)" 등 지나친 비판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눈에 띄었다.

이런 가운데 강 대표의 진퇴를 놓고 김무성, 한선교 의원 등 친박(親朴·친박근혜) 의원들은 "재보선에서 졌다고 당 대표를 바꿀 수 없다"고 입을 모은 반면 권오을, 김희정 의원 등 친이(親李·친 이명박) 인사들은 퇴진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해 대조를 이뤘다.

대선주자 '빅2'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입장차 엇갈렸다. 남경필 의원은 "재보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당내 출세우기에 진력한 두 대선주자에 있다"고 지적탄을 날렸으나 박 진 의원은 "오만하고 단합하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만큼 후보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과열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터키를 방문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26일 앙카라에서 터키 압둘라 굴 외무부 장관과 함께 2012년 여수박람회 로고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여수박람회 유치위원인 서갑일 의원. /현대·기아차 제공

# “여수엑스포 양국 경제교류 도움”

###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터키 방문 유치 활동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동구권을 거쳐 이슬람권의 수장 국가인 터키를 방문, 2012 박람회 여수 유치활동을 벌였다. 특히 터키는 여수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모로코와 같은 이슬람권이어서 터키 공략은 박람회 유치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 회장은 26일 레프탑 타임 에르도안 터키 총리를 만나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 협조를 부탁했다. 정 회장은 이날 터키 총리관저에서 가진 에르도안 총리와 면담에서 "세계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터키 정부가 힘이 돼 준다면 민간경제 부문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교류도 활발해져 양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 여수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민간 부분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

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터키 세계박람회기구 주무 장관인 압둘라 굴 외무장관, 오스만 페페 환경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터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에르도안 총리와 양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민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터키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에는 국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인 서갑일(순천) 의원과 함께 했다. 서 의원은 당초 슬로바키아와 체코 등 동구권 일정에 참여했던 정부, 국회 대표단이 귀국한 뒤에도 정 회장의 터키행에 동행, 터키 정부는 물론, 세계박람회사무국(BIE) 회원국인 유럽지역 외국 대사 등을 상대로 독자적인 유치활동을 벌였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조성위 집행기능 재조정 어렵다”

### 조영택 문화도시조성위원장 내정자



분명히했다. 그는 또 "최근 사직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광주지역 7명의 조성위원들의 인사 처리는 청와대 인사팀의 권한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영택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내정자는 26일 송제구 전 위원장 해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조성위의 집행기능 강화와 관련, "조성위에 집행기능을 보완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조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문화중심도시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집행이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조성위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조성위가 집행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나 방송위원회 등과 같이 합의를 행정기관 체제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바꾸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해 집행기능 부여를 정부에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조 내정자는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금액을 갖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사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업에 따라 지방에서 할 일인 지, 지방과 국가가 공동으로 할 일인지, 국가에서만 할 일인 지 등을 고민해 재정 부담을 결정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숲맑은**

푸른대숲, 시원한바람,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潭陽은”

-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지의 고장!
- 안전한 먹거리, 웰빙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경의 고장!
- 연구·생산·물류·유통이 편리한 기업하기 좋은 고장!
-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레저 관광의 고장!

대나무골 담양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담양군이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담양군**

제9회 2007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나무 숲으로 떠나는 7일간의 여행!

영산강 최상류 깨끗한 물과 맑은 댓잎소리에 행복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펼쳐지는 제9회 담양 대나무축제에 여러분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초대합니다.

**2007. 4.29 ~ 5.5 (7일간)**  
장소: 담양문화공원, 한국대나무박물관

사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문화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